

삶과 죽음에 관한 이해를 돕는 호스피스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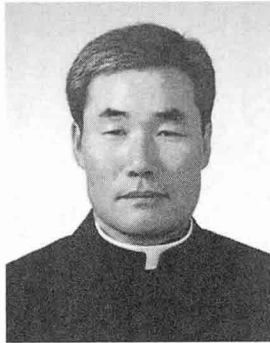
김창훈

본회 지도신부, 가톨릭 중앙 의료원 원목실장

창 조된 모든 생명체는 제한된 생명을 누린다. 죽음이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분명하고 두터운 장벽이다. 사람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인간은 하느님의 콧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생명체로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려고 창조되었으나 여전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창 2,7)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에덴동산에서 살기로 되었었지만 그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와 함께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창2,8) 이 금단의 열매는 인간이 한계를 지닌 인간 존재임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 주는 상징이다. 더욱이 이 동산에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시키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뱀으로 묘사된 사탄이 숨어 있다. 이 죽음을 인간은 벗어날 수 없고 인생은 죽음을 전제하는 여정이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한가운데서 삶을 영위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의 단편들을 경험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굶주림, 중노동, 실패, 노쇠들을 통하여 그 죽음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결국 우리가 바다들이기 싫은 이 빈곤, 질병, 고통, 절망, 이별 등등은 죽음을 미리 드러내 보이고 알려주는 전조이다. 이 죽음은 마지막에 도둑처럼 몰래 침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이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삶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



안에 죽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경험은 죽음의 경험과 함께 한다. 따라서 죽음을 대비하는 것은 참으로 진실하고 충만한 삶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은 죽음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것으로 경험된다. 우리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아주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경험

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 죽음을 직면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므로 죽음에 대한 상념은 삶을 더 풍요롭게 깨닫게 한다. 인간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한계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삶은 이 의식에 의해서 영위되기 때문에 이 의식 안에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하고 믿고 희망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은 이 의식 덕분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무한을 향한 갈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 의식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방식에 따른 그 삶의 내용들이 다양하다. 인간은 죽음으로써 자신에게 드러나는 허상의 너울을 벗어나게 된다. 죽음 앞에서 삶의 정체는 더욱 더 분명해진다. 죽음은 삶의 계시이다. 죽음을 직면한 인간은 자신의 인생 구조와 인간존재에 대한 실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영, 육의 모습을 지닌 타자를 향해 개방된 삶을 영위하는 인격체이다. 영과 육의 차원을 지닌 인간이 하느님과 타자를 향해 개방된 삶을 살게 되면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과 교류를 하면서 자기 존재의 한계를 초월한다. 영과 육의 차원을 지닌 존재로

서 인간에게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태어난 아기가 쇠퇴해 가는 것은 생물학적 생명 곡선이고 이 생물학적 곡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고 삶의 지평을 열고 타자와 세상과의 만남을 향해 자신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인격적인 생명의 곡선이다. 인간의 생물학적 곡선은 질병에 대한 자기 방어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반면에 인간의 인격적인 곡선은 자아를 타자에로 개방시키고 자신을 양도하며 자아의 초탈을 추구한다. 인격의 특징은 타자를 향한 개방, 자아 극복, 헌신과 자아 봉헌이다. 이처럼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를 포기하는 인격의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 참인간이다.

죽음은 인간이 진행해 오던 인격적인 삶의 과정을 종결한다. 이 죽음으로 인간은 나그네의 삶을 종결하고 영원한 세계로 돌입한다. 죽음은 시간과 영원 사이의 중립 상태이고 그 경계이다. 죽음은 참다운 탄생이며 이때 온전한 인격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 죽음은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결단을 하는 순간이다.

이 죽음의 순간에 인간은 자유롭고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고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죽음은 더 이상 회피할 수도 없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하느님과의 결정적인 상봉이다.

이러한 삶과 죽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러한 삶과 죽음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분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이 호스피스 활동일 것이다. 우리는 환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 죽음과 삶의 움직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은총의 계기가 바로 이 호스피스 활동일 것이다.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이 함께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호스피스 활동을 통하여 환자들의 의식의 움직임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사멸하는 목숨에 연연하기 보다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주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의 길 위에서
제가 더러는 오해를 받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쓸쓸함에
눈물 흘리게 되더라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가는
인내로운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맡겨진 시간의 웃감들을
자투리까지도 아껴쓰는
알뜰한 재단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해인 수녀의 사계절의 기도 중에서-